백석

국어국문학과 2018312567 조명하

**1. 백석론 요약정리**

백석의 초기 시에 보이는 유년 회상은 태반 회귀 소망의 한 형태이며 그것은 보호받는 태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의 표명이다. 고향에 대한 백석의 시적 탐구는 고향의 풍물과 습속과 삶의 재현을 도모한다. 거기 시사된 삶은 대체로 계몽의 근대와 무연한 한과 인습적인 음지의 삶이다. 또한 그의 방언 지향은 방언이 모어 중의 모어요 상투어 아닌 시원의 언어이고 사회적 순응주의나 교육에 의해서 강제 소독되지 않은 유년기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또한 식욕 지향은 결코 식탐의 표현이 아니라 자족자부의 정신이나 일상의 제식화 성향과 연관되어 있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은 단순한 조리법과 영양 섭취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윤리와 대의에 연관된다.

북방시편의 특색은 초기 백석 시의 특징인 서도 방언 지향과 특유의 열거법을 절제하면서 예사로움의 독보적인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정공적으로 토로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새 경향이다. 이는 시대나 사회와의 순탄치 못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북방시편의 곳곳에 토로되어 있는 것은 요컨대 맑은 마음을 가지고 쓸쓸하게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넋 하나를 건지는 어진 삶을 산다는 것이다.

50년대 말 북에서 보여준 백석의 시는 체제 찬가시편이다. 해방 직후 백석은 소련문학의 번역에 힘을 쏟았고 6.25전쟁 후에는 아동문학 쪽으로 관심을 돌렸다. 백석은 문학 쪽의 음달을 택함으로써 자기 현시와 동떨어진 지점에서 글쓰기를 계속하며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려 했고 그것이 소련문학 번역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이념적 요소가 비교적 희박한 아동문학을 택함으로써 급속한 시세계 변모를 꾀함이 없이 자연스레 창작 활동으로 복귀한 것이다. 백석이 아동 문학에서 통렬히 비판한 것은 ‘벅찬 현실’을 다룬 작품에 보이는 도식화 경향이다. 이어 그는 ‘기교 무시’ 성향을 비판한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나 이에 준하는 공식미학이 “형식주의적 편향”이라고 매도하는 요소를 백석은 옹호하고 있는 셈인데, 공식미학의 이데올로기라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식문학 취약성의 급소를 공격했다.

**2. 질문, 문제제기**

성인의 점잖은 공식문화가 억압하고 금기시하는 미각 경험의 탐닉적 재현이 유년기 회상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과연 백석의 시가 미각 경험의 탐닉적 재현인가? 미각보다 그 맛을 함께 느끼는 공동체를 부각시킨 것 아닌가?

동식물과의 친화적 근린관계가 유아적 세계 파악의 잔재라고 했는데 예시로 든 ‘북방에서’ 화자는동식물을 버리고 남으로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것을 친화적 근린관계로 볼 수 있는가?

김기림의 평가도 부정하고 오장환의 평가도 부정하고, 사사로운 시인에서 축복의 시인으로 변모했다는 평가를 내렸는데, 일제 강점기 당시 백석이 쓴 시를 ‘사사로운 시’로만 평가하는 것인가?